



코스모스 ‘활짝’ ... 가을 ‘성큼’

지난 2일 수의과대학 신축 건물 예정지에 가을을 알리는 분홍빛 코스모스가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다. 여름내내 풀만 무성했던 들판을 코스모스가 한 폭의 그림처럼 수놓고 있다. 고훈희 기자

가중되는 노동에 시달리는 학과 조교

작업량 많아 야근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 일, 일

학과 조교들의 업무가 부당할 정도로 과도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학과 조교는 학과로 오는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학생 학생 관리, 교수 수업 준비를 돕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외에 조교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일들이 떠맡겨지고 있다. 공과대학의 한 조교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 몇몇 학과는 공학인증사업을 하는데 학생 학사관리 뿐만 아니라 공학인증도 따로 관리해 이중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과 특성상 실험기자재 관리 등을 위해 조교를 한명 더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자정이 넘

도록 학교에 남아 일하는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공과대학의 조교는 “업무 과중이 결국 학생들의 불편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교들이 보통 2~3년 하고 그만 두는데 공학인증 관련 업무를 익힐 때쯤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 들어오니까 일처리가 서툴러 학생들도 서로 불편하다”며 “학교에서 파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과학대학의 한 조교는 “학과가 어떤 사업단을 맡게 되면 그 업무

가 그대로 학과 조교에게 가중된다”며 “학기 초에는 학생들 학사관련 업무로 정신이 없는데 사업단 일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돼 지난 3월에는 주말도 반납하고 학교에 출근하고 매일 야근까지 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기관의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립대의 조교는 7급 공무원 대우를 받고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은 학칙에 따르고 있다. 이전에 학과 조교 일을 했던 A씨는 “학교는 신규 사업을 따낼 생각만 하고 관리할 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 가뜰이나 힘든데 교수님들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해야 한다”며 “교

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볼 논문 복사나 교수님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물론, 어떨 때는 점심배달도 도맡아 한다”고 말했다. 계약직 근로대우에 비해 노동강도와 스트레스가 엄청나 조교들이 1~2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이다. 학과 조교들은 야근을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교수들이 사업단이나 연구소 일을 겸임했을 때 따로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조교들은 그러한 업무를 보조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인문대학의 한 조교는 “조교가 이중 삼중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인 ‘학과 학생들 챙기는 것’에 소홀해진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현성미 기자

예술디자인대학 신설

법정대는 사회과학대로

2012년부터 예술디자인대학이 신설되고, 법정대학이 사회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바뀐다. 예술학부에 속했던 음악학부와 미술학부, 공과대학에 있던 산업디자인 학부로 구성되는 예술디자인대학은 제주의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김방희 예술학부장은 “현재 예술학부에 평의원이 배당돼있지 않고 학부회의에도 자격이 없어 학부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학 신설로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대학은 2012년부터 ‘사회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무과 관계자는 “단과대학명 변경으로 향후 설치가 논의되는 학과들 중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과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졸업생 중 절반만 취업

교과부 취업통계 결과 제주대 취업률 20위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50.9%로 나타났다. 졸업자 중 절반만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대학교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생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인 ‘나’ 그룹에 포함된 제주대는 취업률이 50.9%로 ‘나’ 그룹 32개 대학 중 20위를 기록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의 평균 취업률이 78.6%로 가장 높고, 교육계열이 26.1%로 가장 저조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의학과(91.2%)이며, 다음으로 야간 회계학과(87.5%), 간호학과(87.8%),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77.8%), 관광개발학과(75%)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조사 결과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률은 취업자 수를 취업대상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은 제외됐다. 고훈희 기자

제주대 교원양성기관 평가 C등급

교직과정 20%, 교육대학원 50% 정원 감축

내년부터 교직과정 정원이 20%, 교육대학원 정원이 50%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발표한 ‘2011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제주대는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 정원은 올해 132명에서 내년 105.6명으로, 교육대학원 정원은 올해 159명에서 내년 79.5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보다는 향상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대는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교수 충원율, 장학비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분야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강사로 수준, 교원 임용률, 전임교원 강의 시수,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이 저조해 C등급을 면하기 어려웠다. 학사과에서는 2013년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사과는 내년부터 유사 교직과목을 통합해 질 높

은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등 교사들과의 학습법 워크숍 마련,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대화, 교과교육론 전임교원 임용 등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중환 학사과장은 “부족한 점을 보충해 2013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훈희 기자

사령

고용희(사회3)
편집국장으로 임명함
김명지(정치외교1)
김소영(국어국문1)
기자로 임명함
이상 9월 1일자
강보배(정치외교3)
편집국장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
이상 8월 31일자

현대중공업가속
www.oilbank.co.kr

현대오일뱅크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정유업계 고도화율 1위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분야 : 사무직, 기술직 00명
2 접수기간 : 9/1(목) ~ 9/18(일) 24:00
3 접수 :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4 문의 : 02-2004-3036/3112

공장 총 부지 약 330만㎡
(149만㎡ 추가 매입 예정)

제1 공정 / 제1 고도화 설비

New BTX 증축공장

제1 BTX

제2 고도화 설비

사업예정부지(윤활유, 프로필렌 등)

현대대죽공원

고도화 설비란? 원유정제과정에서 걸러지는 중질유를 고품질 청정 기름으로 되살리는 첨단기술입니다

사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주목한다

지난 5일, 교과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도 중대한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년제 28곳, 전문대 15곳,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모두 17곳으로 발표되었다. 원광대, 상명대, 경남대 등의 4년제 대학들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어 충격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들은 연말께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되어, 퇴출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는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 방향이 ‘우수대학 지원’ 보다는 ‘부실대학 제재’라는 쪽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우리 대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 대학체제에 일대 충격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그 파생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국립대학 역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국립대학 발표 등 ‘국립대학 구조조정’ 작업의 추이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향의 관심이 불가피하다. 하나는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작업과 이에 따른 대학간 경쟁의 격화에 개혁신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혁적 노력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학기의 성찰 - 행복한 삶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40여 년간 25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증가를 뒤따라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40년 전 세계 최저수준이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수준이 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순이 아니라 정의와 안전, 인권, 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로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북유럽권 국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 사람의 91%, 덴마크 90%, 핀란드 사람들의 86%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미국은 1인당 소득이 이들 나라보다 1만 달러 이상 높지만, 만족도는 훨씬 낮았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다른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인 나라가 부탄이다.

부탄은 국가 운영을 위해 “1)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의 발전 2) 문화가치의 보존 3) 자연 환경의 보존 4) 바른 정치 운영”이라는 네 개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부탄은 현대 물질문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그 대상과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기를 원한다. 1970년대 초부터 완만한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탄의 대부분 지역은 아직 전기도 도

정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내재된 위험성이, 대학의 위상과 미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대처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의 개혁 작업에는 항상 그것을 추진하는 당시 정부의 주관적,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게 된다. 광범한 토론이 그런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지만, 최근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서 그런 소통적 과정은 매우 미흡해 보인다.

부실대학 제재라는 방향 때문에, 학문적 수월성보다는 기능적 적합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평가기준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을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학의 정책방향을 지나치게 그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등록금 인상의 근원적 원인에 대응하기보다 그 인상 수준 같은 단기적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정책론적 의미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 총장 직선제 채택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등, 여러 구상들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정책의 전반적 모습은 여전히 유동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대학인 스스로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정책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로도 현대적 통신수단도 없다. 이것은 국가적 선택의 결과다. 하지만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룹에 속한다. 우리가 부탄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부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주요 언론은 국민소득 증대가 모든 국민들의 지상목표가 되어야 하는 듯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아니라 사회보장, 치안, 안전한 먹을거리, 보건 등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경제 발전이나 소득 증대가 최종 목적이나 궁극의 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과 발전이 목적이며 궁극의 선이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 안전한 지구는 우리의 목적이며, 경제 성장은 그 수단 또는 부수 효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망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꼭 해야 할 일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기도 알찬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아이핀 인증 도입으로 게시판 사용 크게 불편

당국 “개정법 적용 앞서 도입”

제주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이 전보다 불편해졌다. 지난 1일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서비스가 중단되고 공공아이핀 인증서비스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실명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공아이핀에 가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학생들이 글을 올리기에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수는 시행 전과 비교해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공공아이핀에 가입하려면 공공아

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JAVA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세 방법이 모두 번거로운 면이 있어 가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학생 대다수의 의견이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에서는 자신과 세대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방문신청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현지훈(사회 4)씨는 “글을 올리기에 위해 게시판에 들어왔는데 공공아이핀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글을 올리야 한다면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혜정(환경공학 1)씨 또한 “평소 공공아이핀을 이용해 온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해 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게시판 자체가 비활성화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실명인증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종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원은 불가피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상미(정보통신원)씨는 “실명인증서비스의 공공아이핀 대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년 전부터 계속 권고해 왔던 사항”이라

며 “개인정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명인증서비스가 유료라서 최근 학생들이 올리는 게시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아차피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아이핀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겸 다른 공공기관보다 좀 더 일찍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고남현(개인정보보호과)씨는 “2011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아이핀을 통해 가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양진건 교수 ‘유배길에서 추사를..’ 발간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생활 집중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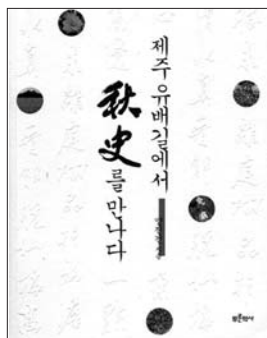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가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양진건 교수의 역사서로,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주도 유

배 생활 9년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학계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과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 잡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책에서는 지금 동 경로와 날짜, 그리고 제주성에서 대정까지의 길을 소상히 짚어준다. 학문에 몰두한 힘들었던 유배 초기



양진건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장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저자 양진건 교수, 푸른역사

시절, 추사와 제주 유생들과의 만남에 주목하여 추사가 제주 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핀다.

한편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지난 5월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에 의해 추사유배길을 조성했으며, 개통 시기에 맞춰 안내책자인 ‘추사에게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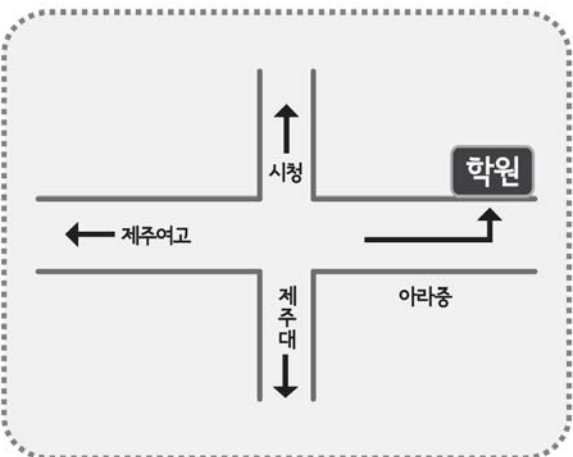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고용희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un.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2.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3.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6.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7.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8.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육·해·공군 병 매월 모집

지원자격

- 연령 : 18세~28세(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 학력 : 중졸이상(유급지원병 고졸이상)
- 신체등위 : 1~3급 현역입영대상자(일부 1~2급)

모집구분

- 육 군 :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개별모집병 등
- 해 군 : 일반, 연예, 군악, 특전(UDT), 잠수(SSU) 기술계열 등
- 해병대 : 일반·기술, 수색, 화학, 중장비, 군악 건축토목 등
- 공 군 : 일반, 전자계산, 기계, 차량정비, 어학, 의장, 군악 등
- 유급지원병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 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3~5월차 입영
- 문 의 :** 제주병무청 현역입영팀(064-720-3259)

위험천만 학교 후문 통학길 대책마련을

제주시 “내년까지 인도 넓힐 것”

학교 후문에 위치한 산천단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인도의 폭이 좁거나 아예 확보되지 않아 길을 이용하는 대학교성원들이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산천단 마을에서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의 인도는 폭이 약 90cm밖에 안 된다. 더구나 인도에는 수풀까지 보도로 뻗어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걸어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안전시설도 없다. 이와 함께 산천단 마을 진입로의 다리 부근에는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피해 걸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을 지나는 대학교성원들은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안혜린(독일 2)씨는 “경사가 있는 길이라 차들이 빠르게 내려오는데, 차들이 바로 옆을 스쳐가 위험을 느

낀 적이 있다”며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시설도 없어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혁(법학 4)씨도 “버스정거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뒤에서 차가 ‘뺑’ 하고 빠르게 내려온다”며 “많은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만큼 인도를 넓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인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 최소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를 최소 1.5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천단마을에서 시외버스 정거장으로 향하는 인도는 폭이 90cm 내외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천단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인도 폭이 약 90cm에 불과해 보행자들이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제주시 도시과에서는 이르면 내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인도를 넓게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새로 신설되는 보도의 경우에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도는 사유지

가 포함돼 있거나 지형적인 한계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르면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는 대로 인도 확충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권인혁·문원석·윤석산·양영수 교수 정년퇴임

지난달 31일 법정대학 중강당서 퇴임식

권인혁(사학) 교수, 문원석(무역학) 교수, 윤석산(국어교육) 교수, 양영수(영어교육)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지난날 31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퇴임을 앞둔 교수, 교수가족과 친지, 김태환 총동창회장, 학생, 교직원 등이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식장을 가득 메웠다. 퇴임식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퇴임하는 교수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권인혁 교수는 196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해 196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문학사를,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91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권교수는 1980년부터 전임강사로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어 30여년 넘게 연구 활동을 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문원석 교수는 1964년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해 1971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사학사, 1974년에 같은 대학 무역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교수는 1981년 3월 무역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돼 30여 년 동안 연구 활동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올해 그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국제경영분야의 인물로 등재됐다.

윤석산 교수는 1967년 공주교육대



권인혁(사학) 교수, 문원석(무역학) 교수, 윤석산(국어교육) 교수, 양영수(영어교육) 교수

학을 졸업해 1977년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사를 취득했다. 또 1990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교수는 1986년부터 전임강사로 시작해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25여년간 연구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다.

양영수 교수는 1972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문학사를 1988년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교수는 1982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활동을 해 왔다.

또 그는 영문학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비교신학에도 관심을 가져 최근 ‘세계 속의 제주신화’라는 책을 냈다.

김명지 기자



지난 6월 구성된 제주대 여성기구협의체가 첫 사업으로 ‘여교수와 함께하는 여대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여교수회, 여성기구협의체 구성

여교수회(회장 광역총 의학과 교수)가 대학내 여성관련 기구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제주대 여성기구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여교수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승은), WISE제주지역센터(센터장 지영흔), 총여학생회(회장 양혜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의 첫 사업으로 ‘여교수와 함께하는 여대생 멘토링’

이 지난달 2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여교수회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WISE제주지역센터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여대생들의 진로 개발과 여성 리더십 함양을 위해 교수와 제자간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또 행사에서는 제주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이 ‘20대, 꿈의 공장을 가동시켜라!’라는 주제의 특강도 열었다.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지난달 25일 거행

2010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25일 열렸다.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린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교육행정전공 고영민 외 73명이 학위를 수여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최우수학위논문상(총장상)=현유미(영어교육) △우수학위논문상(원

장상)=고영민(교육행정), 김도연(상담심리), 문옥훈(수학교육), 허진(체육교육), 이은혜(미술교육), 김순희(음악교육),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창장(총장상)=김인기(교육행정) △표창장(원장상)=고영민(교육행정)

김중조 교수 발전기금 1억원 쾌척

김중조 석좌교수가 ‘산학협력 우수교수 기금’으로 지난 2일 1억원을 쾌척했다. 김 교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제주대 및 제주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 우수기금 쾌척은 영국에 본사를 둔 (주)에드워드 코리아 회장 및 서원에드워드 대표이사로서 40년간 재직하는 동안 저축한 개인 봉급에서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학협력단은 이 발전기금으로 산학 협력이 우수한 교수를 선발해 매

년 개교기념식에서 표창과 장려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중조 교수는 2008년 9월 제주대 공과대학과 인연을 맺은 이래 취업특성화 교과목인 ‘CEO에게 듣는다’의 담당 책임교수로서 학생들의 취업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교수들이 첨단산업체와 공동협력하게 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또 세계반도체장비제조협회 회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반도체최고위과정 총동창회 회장, 한국진공연구조합 초대이사장 역임을 비롯, 현재



김중조 석좌교수가 지난 2일 허창진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주)에드워드 코리아 회장, 한국외국기업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산업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다.

제주대, 승마산업 육성에 박차

지식경제부 프로젝트로 국고 5억원 지원

제주대가 고부가가치 승마산업을 육성하는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11 지역인고산업육성사업에 제주대는 ‘녹색자원기반의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프로젝트’(단장 강민수 교수)가 선정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체결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산학협력단은 올해 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승마산업을 국내 최대 마산지의 장점을 살려 승마지도사와 글로벌 승마산업 CEO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승마협회단, 청소년 승마단 운영, 웰빙승마대회 개최 등으로 승마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다양한 승마콘텐츠와 승마용품, 외식코스 등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승마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화된 기업지원을 통해 승마산업을 글로벌 고부가 녹색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민수 단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제주대가 국내 최고 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될 것이 확실한다”며 “제주도 마산업 특구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부속시설 탐방 <6>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빛내는 미다스의 손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는 학과는 지방대에 딱 두 군데 있다. 강원대와 제주대다. 교수회관 지하에 위치한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를 직접 찾았다.

센터 출입문 앞에는 추사 유배길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사업 ‘제주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현재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교수 6명, 석사 과정 중인 학생들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국제 과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의뢰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의뢰가 들어와 세계 자연유산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을 수행했고, 작년 같은 곳에서 또 의뢰를 받아 지질공원을 맡았다.

올해는 제주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을 시행했다. 2010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협력사업으로써 무려 25억원의 비용이 드는 스케일 큰 사업이다. 1차로 추사 김정희의 유배길을 조성했고, 현재는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양진건 센터장은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신화와 문화가 매우 다양한데 이것들은 모두 다들여지지 않은 원석”이라며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가공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배문화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색다른 문화”라며 “이러한 원석을 영상화하기도 하고 상품화하기도 하면서, 본래 유배문화가 가진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 설화, 해녀, 삼별초... 제주도에는 아직도 원석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존재한다. 이 원석들을 최대한 많이 콘텐츠로 개발해내고자 하는 포부가 스

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 녹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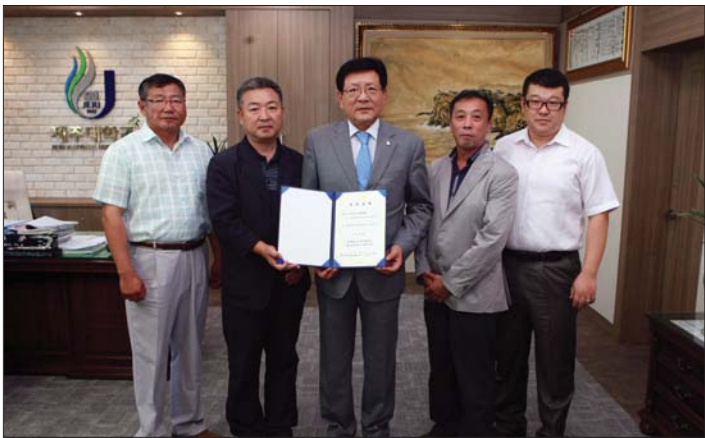
양진건 센터장은 “제주도의 가치 있는 문화들을 꾸준히, 그리고 참신하게 개발해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한, 제주지역 문화 사업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김소영 기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 조성한 추사 유배길 '인연의 길'의 수월이문.

뉴스 클리핑



공직협, 인재양성관 건립 1000만원 기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태완)가 지난달 30일 인재양성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대학에 기부했다.

이날 김태완 회장은 “제주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재양성관 건립을 위해 협의회 임원진들이 성금을 모금했다”며 “앞으로도 대학 발전을 위해 보탬

이 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교60주년을 맞아 세워질 인재양성관은 사범, 행정, 기술, 외무고시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개교기념일 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인문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인문대학(학장 김석준)은 인문사회계열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2011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 과정은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 전액인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과정에는 △영상문화기획인력 양성트랙(담당 김치완교수) △기자·홍보전문인력 양성트랙(담당 김동운 교수) △방송작가 양성트랙(담당 김명하 교수) △박

물론·미술관 학에서 양성트랙(담당 김동진·김영관 교수) △사회복지기획인력 양성트랙(담당 최현 교수) △국제화전문인력 양성트랙(담당 조홍선·정창원 교수) 등 6개트랙 120여명이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가한다.

이 과정은 학기중에는 이론 위주로 교육한 후에 겨울방학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산업체에서 몸담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취업과 연계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꿈을 키운 60년, 빛이 되어 세계로!

‘꿈을 키운 60년, 빛이 되어 세계로!’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학교성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교 6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손오규 국어교육과 교수)는 “문구 전반부는 제주대가 지나온 60년 역사를, 후반부는 제주대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잘 담아냈다”면서 “꿈은 우리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이상을 말하고 60년 동안 이뤄온 상아탑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캐치프레이즈에 출품된 작품은 총 438편이며 이 중 6편(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이 최종선정됐다. 최우수 수상자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이 주어진다.

취업률 71% 달성... “제주를 MICE산업 1번지로”

특성과 사업단 연장 <1>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만 92건. 최근 제주에서 국제회의 개최가 늘어 나며 MICE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MICE산업은 이 네가지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MICE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기획업체, 숙박업체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MICE 사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떠오르고 있다.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이하 센터)는 제주의 MICE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를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MICE분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도 올해 4월 기준 전체 취업률 71.8%(제주권취업률 5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해 열린 ‘제주 MICE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한국 MICE산업전 Seoul MICE Youth Challenge’에서 최고상을 거머쥐는 등 전국만이 아닌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달 2일 발표된 ‘컨벤션기획사 2급’ 합격자 명단에 센터 참여학생 및 졸업생 8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MICE 특화프로그램으로 학생들 꿈 키워

센터에서 이처럼 매해 MICE전문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은 MICE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덕분이다. 올해 1학기부터 시행중인 ‘융복합 MICE 연계전공’을 비롯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한 ‘MICE전문가 및 컨벤션기획사 양성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취업을 향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MICE산업 분야의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창업 동아리’를 운영해 MICE산업에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여학생인 현종석(경영 3)씨와 이범석(관광경영 3)씨는 이 동아리를 통해 올해 ‘제주니스’라는 MICE 중심의 여행사를 창업해 뜻을 이뤘다. 또 변운수



지난 3월 말레이시아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들. 학생들은 제주관광공사 MICE사업추진단과 공동으로 제주 마이스 마케팅 홍보 유치 활동을 벌이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다.

(경영정보 11졸)씨와 이금재·이건우·오준영(관광개발 4)씨 등 4명도 올해 ‘티는 사람’이라는 관광콘텐츠 개발업체를 창업했다. 아울러 센터는 참여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향상을 위한 장려금, 인턴십 및 현장실습, MICE분야 양방향 체험학습, MICE 장학금, 장단기 해외연수 등 다양한 학생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종직 연구원은 “센터의 지원과 혜택은 학생들의 참여의지와 노력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센터의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융복합 MICE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제주의 MICE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지금 센터는 62% 이상의 취업률 달성(권역내 취업률 53%)을 목표로 국제회의전문가교육원 및 한국MICE협회, 제주관광공사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승철 산학협력부장은 “앞으로 롯데·한화·대림 등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예정 사업들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MICE 인재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MICE 교육과정의 정착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정신 가져야”

청년의 꿈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국가

원희룡 국회의원



원희룡 국회의원

1982년 학력고사 전국수석과 그 후 10년 뒤인 1992년 사법고시 수석, 국회의원 3선을 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까지 흔히 탄탄대로를 걸어왔고 화려한 인생을 보장 받은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온 몸으로 도전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으며 이뤄낸 것이지 편안한 길 그 자체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영토도 작고 적은 인구에 자원도 나지 않는 나라가 이토록 경제대국 10위안에 들게 된 이유는 바로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인재는 곧 국가가 세계에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경제 발전 방향의 맥락은 다를 것이다. 점점 빨리 변하고 있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21세기 세계화 분위기 속에 또 다른 한 반도의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선 인력개발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제도적 지원 및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적어도 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선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며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은 땀과 눈물, 피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에서 출발한다. 삶에 대한 열정과 내일을 향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실력을 길러야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눈물과 땀, 피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정직한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자립의 정신 등이 시대적으로 많이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 어려움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 자 감동의 힘이다.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 후 공무원과 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 20대는 도전과 경험, 실패의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20대에는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좀 더 도전해보고,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 여러분의 스토리이자 내공이 될 것이다.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기존의 자아를 깨뜨려야 새로운 자아를 만날 수 있다. 실패와 시련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도전의 발품을 잃어버린 애늬은이가 아니라 거친 바다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가슴에 절박함을 갖고 인생을 준비해가는 젊은 선장이 되길 바란다. 제주도가 좁은 섬이지만 육지를 향해서, 대륙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도전정신과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쫓아라. 그런 진정한 꿈을 쫓다면 자신의 목표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기회의 평등이다. 비록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모두 똑같은 환경에 처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기회를 얻고 발전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수는 반성과 자체 개혁을 통한 모범을 보이고 진보는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MICE 경쟁력, 역동적 참여와 투자에 달려”

센터장 인터뷰

-지역사회내 MICE인재의 중요성은?

“제주는 동북아의 MICE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권역내 국제회의의 기획사(이하 PCO)와 관광사업체의 규모가 작아서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MICE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이 부족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재유출도 심각하다. 관광·레저산업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예비인재들을 제주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향후 지역내 MICE산업과 관광산업의 발

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특화교육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 센터는 MICE 인재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기업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센터사업의 한계 및 어려움은?

“대학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으면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내 산업체의 열악한 환경이 한 단계 향상되지 않으면 산업육성과 인재양성 간에 나타나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MICE분야 예비인재들의 현장적응력을 강화해 취업과 창업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에서 보다 많은 투자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MICE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사안은?

“센터의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취업목표 설정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학본부와 센터, 참여학과들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더욱 공고화 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내 MICE업체 뿐만 아니라 타지역 산업체들까지도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확대 등 산업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



장 성 수 (관광개발학과) 교수

력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함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가 MICE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리나라 MICE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고용희 기자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대학생 아카데미

기간 ▶ 2011년 8월 30일 ~ 12월 6일(개강 8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의소리

강의일정

8월 30일 국제교류회관 원희룡 청년의 꿈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국가	9월 6일 국제교류회관 김경호 이민지(이민정책) 소장 비전설계와 경영의 법칙	9월 20일 국제교류회관 박한기 (주)비전(비전) 사장 21세기 브랜드전략과 스토리텔링	9월 27일 국제교류회관 홍웅식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비전전략 - 꿈의 영토를 확장하라	10월 4일 아라무조출 이지성 "꿈은 다락방" 작가 리딩으로 리더하라	10월 11일 국제교류회관 오경수 통일연구원 이사장 대외이사 기업에 바라는 인재상
10월 25일 아라무조출 오은선 산악인 오은선의 도전과 열정	11월 1일 경향대 세미나실 이종범 프로그래밍 교수 비전전략을 이룬다면 그의 끝까지 없는 도전	11월 8일 국제교류회관 성연미 블로그(비전) 대표 이나운(비전)에서 배우는 Win Win Speech	11월 15일 국제교류회관 이자삼 울진물산업(비전) 사무총장 다문화가 만들어 가는 미래 한국의 힘	11월 22일 국제교류회관 김경호 한조(비전) 대표 스토리텔링 전략을 생각하라	11월 29일 국제교류회관 송동현 strategy(비전) 이사 소셜미디어(비전)를 통한 꿈과 도전
					12월 6일 국제교류회관 서진구 서진구(비전)연구소 소장 나는 희망의 승자가 되고 싶다

홈페이지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T.064) 754-2307



지난 3일 강정천 운동장에서 평화콘서트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강정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한데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고 있다.

초록 강정 지키기 위해 시민들 평화문화제에 모였다

대학생들 평화버스 타고 강정으로... “왜 이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지난 3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평화문화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애초에 구럼비 바위에서 열기로 했으나 전날 경찰들이 중덕삼거리 구럼비 바위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실상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행사 장소를 중덕삼거리 근처 강정천 운동장으로 바뀌 진행했다. 강정 곳곳엔 경찰들이 무장해 있었지만 평화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강정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한명씩 차례로 올라타세요. 평화버스 승차권은 어른은 만원이고 학생은 오천원인데 돈 없으면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귀포 강정에서 열리는 평화문화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주대 정문에 평화버스가 댔다. 이날 학교 정문에는 평화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물려든 대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들의 가족으로 붐볐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 성금을 내고 참여하는 이들은 평화문화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같았다.

미디어를 통해 강정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고경연(사회 2)씨는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사람들이 ‘강정을 지켜달라’고 팸플릿을 나눠줬는데 그 팸플릿을 나눠주던 사람이 강정 주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민활동가였다”며 “말도 많고 여러 사람이 관심있는 사안이라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평화버스를 타게 됐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이유경(철학 3)씨는 “학과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알게 됐다”며 “아름답고 평화롭던 작은 동네가 외부인인 경찰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

는 일은 가서 응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정으로 가는 평화버스에서는 신용인(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친절한 설명도 더해졌다. “제주도에는 전국에 없는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제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으로 마구 개발하려고 하자 전도민이 반발하며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강정마을 해안가 구럼비 바위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정해졌는데 해군기지 건설하겠다는 무단으로 해지해 버린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뒤이어 현지훈(사회 4)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2일 강정에서 주민들이 연행돼 마을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신나는 콘서트도 즐기며 끝까지 강정을 응원하자”고 말했다.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며 1시간 남짓 달린 평화버스는 강정에 도착했다. 강정마을엔 수백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어 위압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평화버스에서 내린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문화제 장소로 갔다. 문화제 장소 입구엔 강정주민들이 모여 참가자들을 반겼다.

입구에 있던 한 강정주민은 “(강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제까지 해오면서 지칠대로 지쳤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힘이 난다”며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로 좌절에 빠진 강정마을에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는 평화행진을 타고 오후 2시에 도착한 시민 20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2000명이 참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올레7코스의 일부를 걷기도 했는데, 이 코스에 해당하는 ‘구럼비 중턱해안가’가 경찰에 의해 차단돼 갈 수 없게 되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강정천 운동장 한켠에는 행사 부스가 마련됐다. 부스에서는 ‘제릴라 사진전’, ‘페이스페인팅’, ‘평화목걸이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뤄졌다. 평화문화제 참가자

들은 누가 참가자고 주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만큼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진행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섰다. 페이스페인팅 부스가 사람들로 붐비자 꼬마 아이가 자기도 거들겠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가자들 얼굴에 고양이, 꽃 등을 그려 넣는가 하면 음식파는 부스에서 몇몇 시민들이 음식을 나눠줬다.

‘평화목걸이 만들기’ 부스에서 목걸이 만드는 것을 돕던 이해진씨. 그는 “반대대책 위 활동을 하다 아예 강정에 놀러 살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구럼비를 한번만 밟아달라’고 했다. 그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실제 맨발로 밟아 보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잔디밭 한켠에는 대학생들이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근범(윤리교육 3)씨는 “개인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개인을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강정주민들의 ‘기억’이 숨쉬는 공간을 주민들과의 혐의 없이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보수적인 학생’이라고 소개한 임현기(윤리교육 2)씨는 “해 군기지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치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 7시부터 3시간에 걸쳐 평화콘서트가 진행됐다. 평화문화제에 한낮부터 참가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늦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누워도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풀’처럼 끝까지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민주주의’고 ‘평화’였다.

현성미 기자

● 인터뷰 김현돈 해군기지 재논의 협의회 공동대표

“강정서 제2의 4·3을 원하는가”

해군기지 저지, 학생 관심 필요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지역 교수 53명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이하 해군기지 재논의 교수협의회)’. 이들은 현재 언론 기고, 세미나, 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군기지 반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공동대표를 맡은 김현돈(철학과)교수를 찾아가 출범 의도와 입장,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해군기지 재논의 교수협의회’의 출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결성하게 됐나.

“그동안은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별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신용인(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매일로 교수협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고, 이에 53명의 교수들이 제주지역의 지식인으로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틀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나서게 됐다. 우리는 강경집압, 공사강행으로 인해 제주 제2의 4.3이라는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8월 2일자로 교수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실현해 오고 있거나 추진 준비 중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지적인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 주민들과 협력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유명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단체들과 연계해 강정으로 가는 평화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 임장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중 토론회를 열어 우리가 왜 이 지역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해야 하는가를 알리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제주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탈냉전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점, 둘째 자연환경 파괴 문제, 셋째 절차 과정상의 비민주성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해상치안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하는 얘기다. 이는 오히려 주변국들을 자극해 부스럼만 일으키게 될 뿐이다. 지금은 탈냉전시대다. 비무장을 통해



김현돈 교수

화해하면서 살자는 게 현 문명시대의 대세인데, 군사기지는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강정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군사기지는 들어서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군사기지를 만들고 군비를 확충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 시대착오적 망발이다.

더욱이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에 대비한답시고 현재의 확실한 환경자원을 파괴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로 보인다. 자연, 마을 공동체 같은 것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이미 강정은 해군의 술수에 의해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다. 거기에 강정만의 구럼비 같은 소중한 자원들까지 파괴돼 버린다면 정부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문제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제주대 교수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갖는 게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과연 이런 아름다운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보고 느끼면 답이 저절로 나오리라 생각한다.

덧붙여서 우리 학교 학생회 조직에 관해 언급하자면, 이런 사안에 대해 학생회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비단 해군기지 문제 뿐만이 아니다.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의 학생회로서 제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 벗고 나서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 항의할 땐 항의하고 요구할 땐 요구할 줄 아는 학생들의 대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김소영 기자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 부세현 부스뮤직 대표

제주에서 축제를 꿈꾸는 영원한 소년

긴머리를 길게 동여매고 거리를 활보한다. 적당히 마른 몸매에 얼핏 보면 ‘여자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다시 보면 누가 봐도 딱 남자라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다시 힐끗 쳐다본다.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제 갈길 가는 부세현(36)씨. 그는 제주에서도 흉대 못지않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을 대중들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2년 전 제주기반인 디레이블 ‘부스뮤직컴퍼니’를 설립했다. “모든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중음악이나 음악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음악을 직접 보고 즐기려면 서울에 올라가야 할까요? 흉대는 되고 제주에

서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대중음악의 ‘진정한 대중화’를 꿈꾸는 그는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제주지역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제주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과 축제가 많기는 하지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은 제한되었다는 것. “제주에는 축제가 50~6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축제는 별로 없어요. ‘그 축제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의 제주 축제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대중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

어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 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시스템을 ‘사회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축제 위해 사회구조 변화 필요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 기획자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불거리 들을거리들을 제공하는 아티스트가 ‘프로’여야 돼요. 우선 공급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죠. 이

를 위해 프로 아티스트들을 양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옆집에 아트록(Art Rock)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세상을 개의치 않고 자기 음악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 그도 밴드 음악로 들어갔다. 매일 노래 부르고 기타 치던 소년이었던 그는 옆집남자처럼 자신만의 음악을 하리라 결심 했고 대학교 안가고 장인처럼 꽃꽂이하게 버렸다. 그러다 어느날 그에게 장인정신을 심어준 옆집남자는 LP판과 CD를 그에게 다 넘기고 홀연히 서울로 떠났다.

“옆집남자는 아트록(Art Rock)으로 유명한 조상현씨예요.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가 지켜주지 못했죠.” 훌륭한 아티스트도 지켜주지 못하는 제주의 열악한 현실에 좌절하고 그는 군 전역 후 서울행을 택했다. 서울에서 그가 본 것은 90%의 훌륭한 지역출신 아티스트들이었다. 지역의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다 서울로 몰리면 지역은 계속해서 문화보도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후 다시 제주로 내려왔다. 그는 제주에 오면서 제주문화관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안고 왔다. “제주는 오름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하드웨어만 믿고 있어요. 그 안의 소프트웨어는 없죠. 행정 주도로 여러 축제가 열리기는 하지만 제주 대중들은 ‘문화적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왜 그러한지’만 묻고 싶어하는 거죠.”



‘제주’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만들어질 때마 그의 눈은 빛났다. ‘대중들과 소통하는 제주축제’를 꿈꾼다는 그는 남자의 긴머리만큼이나 평범하지 않았다. ‘풀개’로 무장한 그의 제주에 대한 애정에 힘입어 ‘문화의 섬 제주’가 되는 날을 꿈꿔본다.

현성미 기자



무론유설

조 홍 선
중어중문학과 교수

개강입니다.

여름 방학 때 제가 만사 제쳐두고 꼭 하는 일은 2학기 수업 중 중국현대문학사라는 중어중문학과 필수 과목의 레포트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두 요소 중 하나는 중국현대문학사 최고의 명작이라 할 수 있는 노신(魯迅)의 「아Q정전(阿Q正傳)」을 읽힌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기억할 만한 사건 혹은 방학 중에 제가 접한 학문적인 이론 등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합니다.

「아Q정전」의 주인공 아Q에게는 인류의 취약한 단면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Q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정신승리법’이라는 자기합리화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비판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

해 분투해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혹은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아Q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고는 망각이라는 수단으로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결국은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세도가들에 의해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정신승리법이 원래는 아Q만의 것으로 혹은 당시 중국인들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되었다가, 점차 인류 전체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일부로 해석되면서 「아Q정전」이 계속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펄라민 파동이 났을 때, 저는 펄라민 파동과 아Q의 관계를 밝혀보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근대화의 최대 과제였던 각성과 계몽이라는 문제마저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혹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의 결여라는 면에서 바로 연상되었으니까요. 매우 최신실이 사실했을 때는 아Q와 최진실을 비교해보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한 사람은 극단적인 자기비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두 사람을 섞어 놓은 생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답을 기대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을 접한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에게 자크 라캉도 소개하고 싶어져서 라캉의 이론으로 아Q를 분석해보라는 숙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타자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는 학생들이 한국의 현재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아Q정전」과 천안함의 관계를 밝혀보라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약소국 국민의 비극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답을 바랐습니다.

이번 학기 속에는 제가 방학 때 학생들과 북적북적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봤던 「매트릭스」를 철학하기」가 큰 도움이 되어 「아Q와 영화 매트릭스 비교해보기」입니다. 이번 학기 숙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훌륭하고 기발한 레포트가 5~6편은 꼭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위에서 제가 열거한 주제들은 대부분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문학의 최고 목표이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다 정답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독서와 부단한 사고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수업에서 과제로 독후감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우리 학교 기초교육원에서 북적북적이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장려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후감과 레포트는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한계로 인해 중국현대문학사 수업의 레포트에만 이메일 형식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레포트와 평가를 한 학기에 2회씩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글썽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독자기고

양 윤 정
간호학과 3학년

예로부터 ‘말의 고장’ 하면 제주도를 많이 떠올렸다. 고려시대에 전국의 여러 섬에 다 말을 키우고 번식해 해서 세금으로 거두어 국가 수요에 충당했는데, 그 수요의 상당량을 제주가 채웠을 정도이니 말이다.

현재로 이어져 온 말 산업은 말의 생산과 육성, 유통의 단계는 돼지나 소와 같은 가축과 유사하지만, 식용 등을 통해 그 자체로 최종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경마와 승마 같은 별도의 소비산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꾸준히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부가까지 창출의 기회가 많은 점이 부각되어 오면서, 제주경마공원의 이용객과 매출액 또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미디어 보도를 보면 알 수 있

제주 경마산업 ‘도박이나 레저스포츠냐’

듯이, 1990년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이용객의 95%가 제주도민들이고, 이로 인해 자살과 가정 파탄 등 각종 폐해가 1000건이나 나타났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마사회와 제주도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와 말 산업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제주 말(馬) 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그 내용은 제주도민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결과뿐이다. 또한 경마공원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듯이 경마시행규정과 승마투표약관에서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창구마다 돌아다니며 10만원씩 일인당 한 경주에 몇 백 만원을 구매하여도 뚜렷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유켄 센터’라고 하여 경마의 습관성 도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심리적 문제나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경마 날에만 근무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상담이나 치료 실적은 이용객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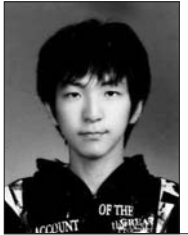
도박성 성격은 육구를 절제하기 힘든 사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카지노, 경마, 복권, 경륜 등과 같은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대박 상금 1등 금액 00만원’, ‘인생역전,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서 누가 혹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레저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도박성이 뻔히 보이는 현재의 경마 산업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할 것인가는

국가의 몫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국민들에게 도박성 이미지가 아닌 아이들과 연인,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의 조성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여럿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경마의 몇 가지 일면들이 도박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제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한방인생이라는 명목 하에,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낚아채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마에 집착하는 모습은 어느 누가 치료해주어야 할 것인가.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은 지금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장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그 가족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독자기고

강 성 준
언론홍보학과 1학년

태풍 무이파는 우리 제주도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갔다. 태풍 무이파가 남긴 것 중 제주도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비행기 무더기 결항사태’이다.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 태풍 무이파가 지나간 다음날 CBS 노컷뉴스 대학생 인턴기자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갔다. 제주국제공항에 가는 길목은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평소와 차로 도착하는 시간의 3배가 걸렸다. 막 막한 교통정체를 뚫고 공항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비행기 무더기 결항으로 인해 수 만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갇혀 있

제주공항 고객편의에 신경써야

는 모습이 아쉬울라 같았다. 공항은 그야말로 공항상태였다. 약 3만 8천여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불만에 가득했고 공항바닥에는 그곳에 누워 노숙하는 사람들이 셀 수없이 많았다. 답답한 공항대합실에서 장기간 혼탁한 공기를 마시며 에어컨을 켜었던 게 원인이 되어 복통과 고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다수 생겨났고, 마음이 조급한 승객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화병’의 고통을 호소했다. 공항 내 제주한라의료원 부설 의료진들에게 진정제를 처방 받았다. 나는 이에 대한 공항 측의 대처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공항은 나름 인력을 총 동원하여 승객들에게 편의시설 등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하였고, 승객들이 공항 내부를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리하고, 이곳저곳에 자치 경찰을 파견하여 공항 내 소란을 예방하고 공항 밖 도로의 교통정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수 만명의 불만이 가득한 승객들을 상대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승객들은 “24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있었다.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어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의 한 승객에게 인터뷰를 청하자, 그 승객은 가차없이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한편 공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우리도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황이 따라주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렇듯 공항은 “불편! 그 이상의 편안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달기에는 부끄럽지 않았나 싶었고 승

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었다. 결국 비행기 무더기 결항 사태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은 나의 첫 취재가 끝나고 7시간 후, 결항된 지 48시간이 지나면서 공항의 정체현상이 풀리기 시작하자 해소되었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의 대문이다. 대문은 그 집을 보는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에 대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미리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공항에서 외국인의 실망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문칼럼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느라 고향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오게 되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꼭 제주대학교에 오게 된다. 대개 갑자기 오게 되어서 누구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 끝에 있는 도서관까지 기어코 걸어갔다 내려온다. 그러면 학교는 늘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준다. 이번 여름에도 휴가차 제주도에 왔을 때 나는 어김없이 모교를 찾았다.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학창 시절의 아쉬움과 교훈이 있어 오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다.

첫째, 질문을 많이 해라. 수업시간 전에 미리 공부할 때 의문이 생기는 것은 먼저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의문이 남으면 수업시간에 활발히 물어봐야 한다. 나 역시 간단한 질문 영통하건 질문을 멈추지 않았는데 잘 대답해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당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따로 알아보고 일러주겠다고 약속도 하신다. 그러면 다음 강의시간이 더 감사해진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질문을 통한 학습법은 나의 직장생활 최고의 무기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익숙치 않아 처음에는 나의 질문법에 적힌 것이 편해지지 않지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모르는 분야가 명확해진다. 상대방도 나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라 법령, 국내외사례, 예산절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된다. 질문습관이 쌓여 심면 이십년이 되면 나는 같은 일을 해도 대중 아는 사람보다 훨씬

깊고 폭넓어진다. 처음엔 나에게 한수 가르쳐주던 사람들이 어느새 나에게 의견을 물을 때 비로소 일은 쉬워진다.

둘째, 전공과 상관없는 교양과목을 많이 들어라. 학창시절 나는 인문학, 고교학에서부터 법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했다. 지식에 욕망이 없어도 되고 다양한 학문을 접할수록 나의 소양이 더욱 넓어져갔다. 전공과목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다. 전공과 달리 교양과목은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지식의 체계로 잡아보고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통찰의 지혜를 쌓아야 한다. 물론 학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학창시절 섭렵한 다양한 인문사회적 교양은 훗날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시켜주는 보물이 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시각이 넓고 교양이 풍부하며 사고가 깊기까지 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다 학창시절 넓게 배운 덕이다.

셋째, 한뼘쯤은 학교에서 밤을 새워 보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마지막



김신숙 (영어교육학과 92학번)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시기관

날은 꼭 밤을 썼다. 마지막 시험과목이 그리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학생으로서 그것을 교수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물론 교수님들은 몰랐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과 사무실 의자위에서 새우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하다. 잠 깰겸 사법대에서 법정대를 지나 경상대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차귀나무에서 분홍 꽃잎들이 새벽이슬을 맞고 떨어져 있다. 도서관으로 올라가다 문득 뒤 돌아보면 하늘과 바다가 경계도 없이 펼쳐져 있다. 시험이 끝나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뿌듯해진다.

요즘도 모교에 들르게 되면 20여년 전 새벽에 학교 계단을 여겨 저기 걸던 내가 떠오른다. 그날도 오늘도 제주의 하늘과 바다는 경계도 없이 야트막하게 펼쳐져 있다. 섬에서 보면 대륙도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 더 큰 포부를 가져도 될 만하다.

넷째, 아프니까 청춘이라지 않는가? 가슴 시리도록 아픈 시련을 경험해봐라. 어느 책 제목처럼 청춘은 아프고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젊을 때는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인이 빨리 되었으면 하였지만, 지나고 보면 부끄럼 없이 방황하던 젊은 날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욱 성숙해지고 넓어진 것 같다. 나의 경우, 동기를 모두 다 세 자리를 찾았을 때 나 혼자 목표도 없고 방법도 모른 채 그저 매일 도서관만 왔다 갔던 적이 있었다.

원래 청춘은 그런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온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향, 하고자 하는 것, 잘하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전공도 선택생님 말 듣고, 멋있어 보여서, 혹은 점수에 맞춰서 온 경우가 많다. 역전의 기회는 이제부터다. 나를 잘 알고 나의 장점을 꾸준히 개발하고 도전하면 길이 보인다.

나는 이후로도 모교에 계속 올 것이다. 어느 새벽이든, 어느 저녁이든 다시 오는 날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나를 보여줄 것이다. 학교에 약속하듯이 한발 한발 더 커지고 넓어진 내가 되어 올 것이다.

2012년 입영 카투사 모집을 앞두고

기고

병무청에서는 2012년 입영하는 카투사를 오는 15일(목) 오후 2시부터 21일(수)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 카투사 최종합격자는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 본인 및 가족, 시민사회단체 임원, 육군 관계자 등의 외부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전산에 의하여 '11.11.10.(목) 공개선발로 결정된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으로 한미합동 작전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카투사는 지원자 접수년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28세이하의 사람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 대상, 어학성적이 지원기준점수 (TOEIC 780점, TEPS 690점, TOEFL IBT 83점, PBT 561점, G-TELP Level 2 73점, FLEX 690점)이상이면 지원가능하다.

단, 접수개시일 기준 2년이내의 어학성적만 인정되며 접수시점에서 해당 어학성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10년 이전 지원자는 재지원이 불가능하다.

2008년 카투사 전국 경쟁률은 4:1이었고,

2009년도 모집에서는 5.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모집에서는 1,920명 정원에 14,226명이 지원하여 7: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난 이유는 학생들의 어학성적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기왕에 입영을 할 것이라면, 군 생활을 본인이 설계하여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군 사특기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하는 육군 모집병 지원 입영자가 7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2.2%, 해병대는 3.0% 증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군입영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꼭 한번은 알아야 할 청춘의 열병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군입영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열병을 앓고 난 뒤 지금 보다 성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카투사 지원자는 물론이고, 각 군에 지원하여 자신의 군 생활을 옹골차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신덕철 제주지방법무청장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사랑의 인술 전하고 왔어요” 2년째 필리핀 오지서 의료봉사 활동 펼쳐

진료대기실 한편에서 한 중년여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한 손으로 그녀의 눈을 가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 끝에서 눈물이 한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Emily (46 여)씨는 의사에게 고름으로 심하게 부어오른 오른쪽 팔꿈치를 내밀었다. 의사가 그녀의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찡그리며 낯선 이방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부위에 메스가 닿자 그녀의 다짐은 무너졌다. 이내 고름액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에 고름 속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다는 걸 진료실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가족격경에 자신의 몸을 신중 쓸 겨를이 없었다. 치료 내내 그녀의 상처부위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녀가 겪어온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다. 이곳은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미약한 곳이다. 특히 일로일로로는 필리핀에서

도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동네라 병원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알게 된 제주대 해외봉사단(단장 김성업 교수)은 지난달 24일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일로일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의학과 교수 8명과 의료 봉사팀 13명, 일반 봉사팀 7명 등 총 28명이 일로일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의학과, 간호학과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봉사단에 합류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단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비행기로 3번을 타고 현지로 이동하는 데만 만나절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리핀 세부 공항에 도착하자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현지 세관이 의약품의 반입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한 시간이 넘게 현지에 발을 디딜 수 없었다. 교수들이 세관원에게 만나절을 들어 필리핀을 찾은 이유와 약품의 필요성을 호소하자 세관은 결국 “알겠습



5박 6일간 필리핀에 사랑을 전한 제주대 해외봉사단

니다. 가도 좋습니다”라는 말로 두 손 두 발을 다 주었다.

25일 오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7시가 넘어 숙소로 도착한 해외봉사단원들은 모두 기절 잠에 빠졌다. 그 날 오후 바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피곤할 법도 한데 봉사단원의 얼굴에는 현지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줘야겠다는 비장함과 함께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편하게 대할까하는 걱정이 엮여 있었다.

현지인들이 우리들을 경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 학생들이 네일아트, 풍선아트, 솜사탕 만들기, 티셔츠 만들기, 풍선아트 등을 준비해 선보이자 마음의 장벽을 허물었다. 그들은 풍선아트로 왕관 등을 만들어 어린아이들 손에 쥐어줬다. 또 이들은 여기에 사는 아이들이 먹어보지 못한 솜사탕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줬다. 또 그들은 현지 어린이들과 어울려 놀며 봉사 장소를 마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정혜진(간호학과 3)씨는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도 않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봉사활동은 미뤄두고 수돗가로 데려가 씻겨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봉사는 지역 보건소와 마을회관을 빌려 진행했다. 보건소라고 해봤자 허름한 단층건물이었고 마을회관은 기둥4개에 양철지붕을 얹어놓은 것이 다였다. 게다가 하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분노 냄새가 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봉사활동 현장에는 이런 악취를 상쇄시키는 향기로온 냄새가 났다. 바로 사람냄새다.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은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자 봉사단은 ‘정말로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더욱 힘을 냈다.

교수들이 환자 진료를 시작했고 의료팀 학생들은 진료 보조를 맡고 처방전을 바탕으로 준비해간 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건넸다. 학생들은 또 혈압을 재는 등 예진을 하고 불소도포를 어린 아이들의 입에 물려줬다. 영어를 못하는 필리핀 주민들이 많아서 현지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통역을 도와줬다.

봉사단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환자도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두통과 기침에 가슴통증을 호소해온 Domingo (62세)씨는 심기범 교수(신경외과)를 찾아왔다.

심 교수는 환자에게 두통약을 주면서 물을 자주마시고 아플 때는 휴식을 취하라는 말 밖에 환자에게 할 수 없었다. 심 교수는 “그 환자가 아픈 원인을 알려면 뇌 검사장비가 있어야하는데 여건 상 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 내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고 환자 앞에서 표정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생후 20개월 된 John(남) 몸이 온통 고름투성이다. 몸 뿐만이 아니다. 얼굴에도 500원만한 고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진료

내내 아이의 아버지는 소아과의사와 올상인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본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는다. 혹여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아들이 더 날카로운 울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아들이 수술하는 동안에 아들을 외면했다. 의사가 고름을 터트릴 때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달라는 요청에만 응했다. 아버지는 수술하는 동안 아들과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창문 먼 밖과 바닥을 번갈아가며 응시할 뿐이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성공적으로 고름을 제거했다는 말에 비로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봉사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다. 모두 맘을 뺏뺏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했고 어쩌다 눈을 마주칠 때면 ‘수고가 많으시네요’라고 눈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현지인들에게 진료를 하고 의약품을 건네주고 온 봉사활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을 수혈 받은 봉사활동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지. 그러기 위해 더욱더 나의 능력을 키워나가야지’ 마지막 봉사활동 장소를 떠나는 승합차 안에서,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김명지 기자



지난달 28일 필리핀 일로일로로 지역에서 심기범 교수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만화로배우는 제주어

글 / 김순재(국어문화연구원)
그림 / 고아라(특별기자)

⑧건볼리다



▶ 똥말똥이

별초하러: 별초하러
덥기엔: 다니려고 **허난:** 하니까
고생덜 험신게: 고생들 하고 있네
똥: 똥 **낭랑알:** 나무 그늘 아래
왕: 와서 **건볼령:** 시원한 바람에 똥을 들고

제주대신문 59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 /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 제공)
-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 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 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 9월 30일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 신문사

문 의 : 제주대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가슴뛰는 일상으로 빠져보실래요?

